

We share God's love with orphans and the disabled in North.
북녘의 장애인들과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함께 나눕니다.

2014

사단법인 푸른나무

Vol. 3

www.greentreekorea.org



특집

- + 이지선, 북녘 아이들의 손을 잡다
- +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안 게임
- + 대동강 장애인 종합 회복원
- + 통일부 지원 장애인 포럼

후원자와의 인터뷰

- + 사회복지법인 밀알
- + 강남교회
- + 광염드림교회

NEW

- + 교회와 함께하는 푸른나무



사단법인 푸른나무
Green Tree Charity Foundation



사단법인 푸른나무
Green Tree Charity Foundation

사단법인 푸른나무는 통일부 산하의 NGO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 민간 단체입니다.

북녘의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장애인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며, 연 6회 이상, 북녘장애인시설 12개시설에 직접 방북하여 모니터링 및 시설방문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북녘 전역 43개의 고아원도 북측과 합의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녘의 장애인, 고아들을 위한 인도적지원사업과 남북, 그리고 해외 디아스포라들의 연합과 통일세대 양성이라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목적 아래 온 민족, 교회들, 성도들의 지원으로 통일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greentreekorea.org
www.greentreeint.org



페이스북
www.facebook.com/greentreekorea



카카오톡 ID
greentreekorea

후원 문의 및 신청 02-3482-2000

Cover Story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안 게임에 참가했던 휠체어 탁구로 출전하는 북녘의 송금정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박수광 이사장, 신영순 공동대표가 경기장을 찾았다.

OUR VISION

우리의 형제인 북녘 동포들과 사랑을 나누고

Share Love with our brothers

우리의 자원인 청년 인재들을 키워 미래를 준비하고

Cultivate the Next Generations

우리의 힘인 한민족 디아스포라와 힘을 합하여

Integrate with Korean Diaspora

우리의 소망인 뉴코리아를 준비한다.

Create New Korea

푸른나무 2014 소식지

발행처 사단법인 푸른나무 발행인 박수광 발행일 2014년 11월 3일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23-13 303호



- 04 박수광 이사장 서신
- 06 이지선, 북녘 아이들의 손을 잡다
- 08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안 게임
- 12 평양 대동강 장애인 종합 회복원
- 14 통일세대를 위한 북한 장애인 제도 및 정책 포럼
- 17 칼럼 : 황요셉
- 18 2014 북녘 어린이 지원
- 22 2014 북녘 장애인 지원
- 25 신영순 공동대표의 북녘 현장 이야기
- 26 후원자와의 Talk 01 : 사회복지법인 밀알
- 30 후원자와의 Talk 02 : 강남교회
- 32 후원자와의 Talk 03 : 광염드림교회
- 35 캠페인 : 포근 따듯 내북 선물하기
- 36 교회와 함께하는 푸른나무
- 37 후원자의 글 : 신일선 권사 (예산장로교회)
- 38 2014 사업보고
- 40 후원자 명단
- 42 후원 캠페인
- 43 후원 신청서

사단법인 푸른나무

이사장 서신



사단법인 푸른나무 박수광 이사장과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김문철 부위원장

함께 통일을 꿈꾸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푸른나무 가족 여러분 !

공공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 무언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화해의 새 물결이 이 땅을 덮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시작했던 2014년이 어느새 속절없이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북녘 땅에서 자라나는 고아들과 장애우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나눔은 계속될 수 있었고,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에 북측 선수단이 최초로 출전하여 경기장에서 남북이 함께 응원하는 기쁨도 있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남북관계 때문에 마음껏 환대하고 사랑을 나눌 수 없었음에 진한 아쉬움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팔 다리가 다 묶여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작은 손짓 발짓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다윗의 돌팔매가 될 수 있음을 믿으며 또 한걸음 내어 디디려고 합니다.

이때야말로 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더 힘을 내야 할 때입니다.

여호와 닮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여러분들 가정과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기원합니다.

사단법인 푸른나무 이사장

郭 泰 光



이지선,
〈지선아 사랑해〉 저자

북녘 아이들의
손을 잡아!

힐링캠프 출연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한 '지선아 사랑해'의 베스트셀러작가 이지선님이 2013년 겨울 푸른나무의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16일 사무국에서 박수광 푸른나무대표의 위촉장 전달과 함께 홍보대사 이지선님께서 북녘의 아이들에게 선물할 내북 후원금도 직접 전달해 주셨습니다. 위촉식 직후 바쁜 일정 속에도 흔쾌히 간증집회 스케줄에 응해준 이지선 홍보대사는 홍보대사로서의 첫 일정을 1월 8일 수요일 지구촌교회 대학청년수요예배인 Power Wednesday에서 함께해주었습니다. 이지선 홍보대사의 감동적인 간증과 함께 북녘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로 전달해주었습니다. 통일세대인 대학, 청년들에게 함께 후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랑의 실천법을 소개해주었습니다. 뜻깊은 일에 함께 할 수 있게되어 감사하다는 이지선 홍보대사의 따뜻한 마음도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푸른나무'의 홍보대사 위촉식이 있었어요.

10년전에 유학생수련회 KOSTA 국제본부 총무셨던 박수광 목사님 만나서 교계를 넘어서는 엄청난 인적 네트워크와 온갖 맛집 정보로 풍부하신 목사님 덕분에 지난 10년간 제가 참 재미있고 또 안전한 가이드따라 잘 성장 할수 있었답니다.

지난 여름 어느 밤,

박수광 목사님이 서로 바쁜 시간 쪼개어 만나자고 하셨어요. 웬일로 독대하는 자리. 꽤 진지한 목사님의 표정.

목사님이 오래전부터 해오시던 "푸른나무"의 홍보대사를 맡아줄수 있냐는 것이었어요.

목사님과의 관계가 아니어도 북한의 고아들을 돕고 장애인들 돌보는 이 일에 함께 할수있는 기회주신 것 감사해서 저는 바로 그자리에서 오케이!

선오빠도 몇년전부터 푸른나무 통해서 매달 500명의 북한 고아들을 후원하고 있어요.

이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는 것인가?'하는 의구심 때문에 선뜻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이 아마 모두의 생각 이실거예요.

들어보니 푸른나무는 깨끗하고 정상적인 루트를 가지고 계시고 오랜 시간 지속된 관계로 그런 구호물품과 후원금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위한 휠체어와 목발은 일반인에게 갈이 유가 없잖아요. 아이들 위한 작은 털모자가 배부르고 등따신 어른들 머리엔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두둥!

여름에 오케이하고 오늘 사단법인 푸른나무의 홍보대사가 되었어요. 위촉장도 받고요.

오늘의 이 만남이 제가 북한을 품고 기도하며 언젠가 통일될 우리나라의 복지를 위해 준비하는 그 중요한 시작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 이 글은 이지선 홍보대사의 공식 블로그 2013년 12월 17일 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INCHEON 2014 ASIAN PARA GAMES

인천에서 함께한 열흘간의 이야기

아시안게임 최초로 북한선수단이 참여한 2014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을 돌아보며...

글, 김 준 사무총장

“남조선 인천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십시오!”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을 가자고 북측 장애인선수들에게 했던 신영순 공동대표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북측 장애인 선수들 마음 속에는 알지 못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동안 참가 권유와 설득이 필요했습니다.

10월 11일 입국, 짧지만 긴 여운을 남긴 첫 대면!!

하지만 10월11일 드디어 인천공항에 북측 장애인 선수들이 내려왔습니다. 한쪽 다리를 잃어버린 송금정 선수, 척추장애로 인해 전혀 걸음을 댈 수 없는 전주현선수, 한쪽 다리가 의족인 마유철 선수 등, 9명의 선수들이 긴장한 얼굴로 인천공항 F 출구를 통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연합뉴스, KBS, MBN등 많은 기자들이 나와 입구는 인산인해...

그곳에서 푸른나무는 인천시 기독교봉사회를 초청하여 약 60여명의 환영단을 만들어 그들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는 선수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송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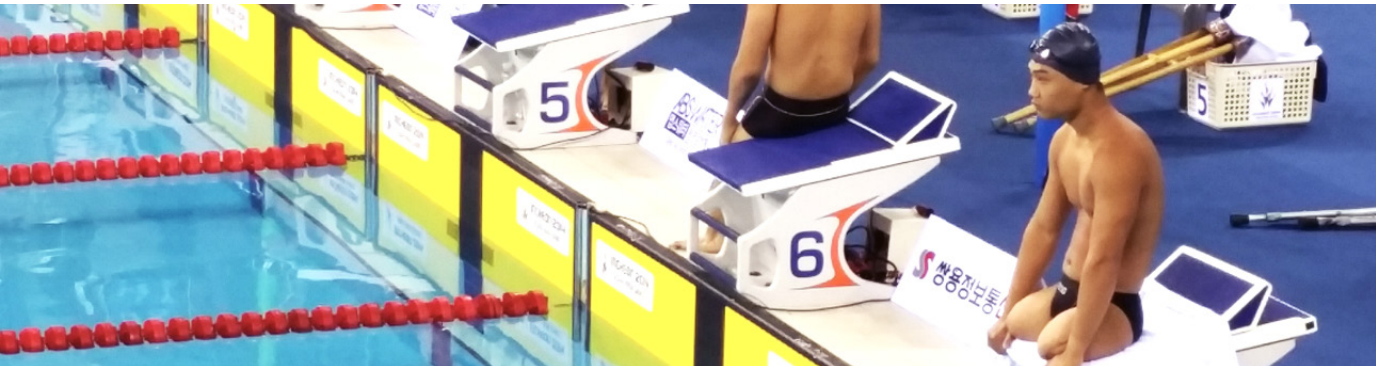
“금정아!~~~~~”, “송금정!~~”

신영순 공동대표와 함께 외쳤습니다. 상기된 얼굴로 나오고 있던 금정이가 오른쪽으로 돌아보더니 활짝 웃었습니다. 그들이 오마니라고 부르던 신영순 공동대표님의 얼굴을 보자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18일 개막식, 가슴뭉클한 북측 선수단 입장!!

드디어 인천장애인아시아ان게임이 18일 저녁에 개막했습니다. 최다국가가 참가한 인천장애인아시아ان게임은 무엇보다도 푸른나무의 결실인 북측 선수단이 최초로 참가해 더 가슴뭉클하게 다가왔습니다. 33명의 북측 선수단은 가장 큰 박수를 받으며 26번째로 입장하였습니다. 경기장을 찾은 국민들은 같은 민족인 북측선수단을 향해 열렬히 환영의 박수를 쳐 주었습니다.



19일~23일, 드디어 수영과 탁구에서 메달을 획득!!

북측 선수들은 정말 열심히 경기에 임했습니다. 첫 날 수영에서 값진 메달을 땀습니다. 심승혁선수가 두 다리가 없는 장애를 딛고 100M 평영에서 세 번째로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첫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귀중한 메달을 딴 것이지요.. 셋째날, 탁구 4강전에서 감동의 남북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북의 전주현 선수와 남의 박홍규 선수가 대결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서 남북선수 모두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대결의 승자는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던 박홍규 선수였지만 전주현 선수도 그에 못지 않은 실력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전주현 선수가 동메달을 추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양궁과 육상에 참가한 선수들도 최선을 다한 경기였습니다.



탁구 남자 단식 준결승전 경기 후 남측 박용규 선수가 휠체어 타려는 북측 전주현 선수를 도와주고 있다.

25일 출국, 짧은 만남!! 다시 만날 그날까지!!

날씨도 추워졌지만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경기에 임했고, 두개의 동메달을 가지고 25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말하지 못할 우여곡절을 거쳐 그들을 한국으로 올수 있게 했고 민족의 화합과 장애인들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기쁨에 한동안 긴장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북쪽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고, 지금도 전달되어 통일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그래서 자라난 북측 장애인들이 통일의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 북한선수단 응원현장에 다녀와서

INCHEON 2014 ASIAN PARA GAMES

2014.10.18 - 10.24



이미경 실행이사

평소에 스포츠에 관심이 없었고, 장애인 스포츠에 대해선 더욱 관심이 없었던 나는 북녘 전역 55개 보육시설 및 장애인 특수시설에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장애인문화, 체육지원 등의 나눔 사업을 펼치고 있는 푸른나무 법인의 실행이사로서 활동하게 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최초로 출전하는 북측 선수단. 북측 장애인선수들이 푸른나무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선수단이라는 사실이 내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10월22일 송도글로벌대학체육관에서 탁구예선이 있었다. 탁구예선에 출전하는 북측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해 송도로 향했다. 북측 응원석에는 북측 선수단 관계자들과, 남측에서 결성된 응원단들이 함께 섞여 있었다. 약간은 삼엄한 경호 속에서 미묘함이 느껴졌다. 북측에서는 선수단 이 외에 별도로 구성된 응원단이 없어 푸른나무에서 응원 서포터를 모집하고 있었기에 많은 수의 응원단들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했으나 평일이어서인지 장내의 모습은 한산하기만 했다. 이 날 출전한 북측 선수는 한 쪽 다리절단 장애 마유철과 하반신장애 전주현. 출전하는 선수들이 입장을 하자 응원석에서는 박수와 함께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그 어떤 나라의 응원단보다도 북측 선수단을 응원하는 그 울림이 장내를 꽉 채웠다. 북녘 선수들은 대회 경험이 전혀 없었기에 긴장감으로 때로는 실수도 했지만 그 모습을 보는 나는 걸음마를 시작하는 자녀가 넘어졌을 때 바라보는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 바로 그 마음이었다. 비록 예선 통과는 못했지만 북측 장애인 체육을 통하여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다는 희망과 한 마음으로 응원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했다. 북측 장애인선수들이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기까지 부모의 심정으로 품고 기도하며 헌신하신 신영순선교사님의 노고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신 많은 분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얻어진 열매라는 생각에 마음의 찡함과 기쁨이 밀려왔다.

이들의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푸른나무'가 앞으로의 한민족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북녘 땅에 한 알의 밀알이라는 생각에 더욱 더 큰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12:24)



평양대동강 장애 종합회복원

남과 북, 해외동포들이 공동 협력하여 건립 될 북녘 최초의 장애인 종합회복센터로, 장애인들의 건강진료, 재활치료, 직업기술 교육, 무료급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특수교육 및 취약계층 등의 통일복지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건립할 예정입니다.

- 사업 예산 : 100억원
- 수혜 대상 : 평양과 지방 거주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 건립예정 부지 : 평양 대동강구역 문흥2동 지역
- 건물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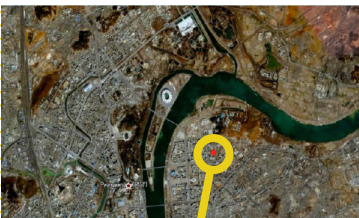
대지 : 12,000㎡ (3,629평) / 총 건평 : 8,982㎡ (2,717평)

본관 : 지하 2층, 지상 4층

(진료실, 재활치료실, 무료 급식소, 식당, 강당, 회의실, 사무실, 교육실, 투숙실, 목욕탕, 공연 연습실, 미용실, 이발실, 주차장 (300대) 등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

• 기대효과

- 미래통일을 위한 통일 복지 구축
- 남북교류를 통한 복지균형 준비
- 특수교육 실무자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 북측 장애인 진찰을 통한 장애 종류 구분 장애 등급 분류와 판단



프로젝트 진행현황



● 대동강장애인종합복지원 설계도 전달 및 착공식 협의 (2013/12)

‘대동강장애인종합복지원’ 건축 설계도 전달식과 변경된 설계내용을 설명해 드렸다. 새로 설계한 지하 2층에는 차량 300대 가량이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이 포함되어 평양에서 최초로 지하 주차장을 갖춘 건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대동강장애인종합복지원 진행 일정

4월에서 7월로 그리고 또 10월로 여러 차례 연기된 착공식과 관련하여 남북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화해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수 있는 평화의 소식들이 2015년에는 들리길 기대해본다.

● 언론보도 ●

[국민일보]

평양에 장애인 복지시설 짓는다 (2014-07-02일자)

(..중략..) 신영순 대표 일행은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 김문철 부위원장과 복지시설 건립 문제를 협의했다. 신 대표는 지난해 2월 김 부위원장과 만나 장애인종합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합의를 작성했었다.

연건평 1만1976㎡(약 3629평)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건립될 복지원에는 재활치료실, 작업장, 점자·수화교육실, 행정실과 장애인들이 예술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700석 규모의 극장식 대강당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푸른나무는 100억원의 건립비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교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신 대표는 “북한이 부지를 제공함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며 “남북한의 장애인 복지균형을 이뤄 나가기 위해 의료와 교육, 회복사역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세대를 위한 북한장애인 제도 및 정책포럼” 진행

최근 17년간의 북한장애인 복지사업을 말하다!

“

북한에는 장애인이 있을까?, 있다면 몇 명이나 있을까?

북한에도 장애인의 권익과 재활을 돕는 장애인단체가 있을까?

대북인도적지원단체가 많은데 그 중에서 북한의 장애인들을 돕는 단체가 있을까? 돕고 있다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을까?

”

글. 이호건

많은 사람들이 푸른나무에 문의하는 질문들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북한사회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언론에서 편파적으로 보도되는 북한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부분들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단법인 푸른나무에서는 ‘북한 사회 바로 알기’의 일환으로 북한의 장애인 복지 실태와 함께 북한 장애인복지와 한국의 장애인복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취지로 “통일세대를 위한 북한장애인 제도 및 정책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을 위해서 통일부가 후원해 주었으며, 연세차세대연구소, 강남대학교, 대구교육청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주었습니다.



1차 · 서울, 2차 · 경기지역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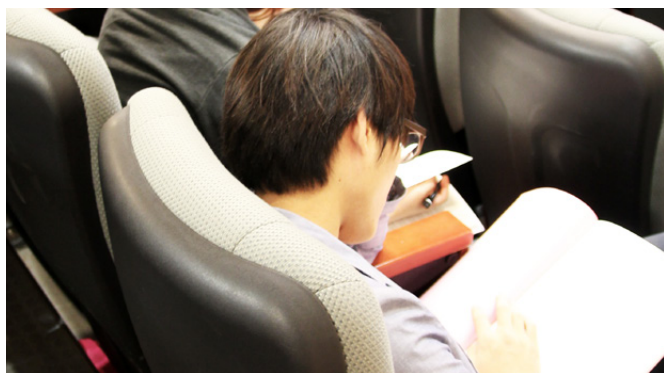
9월 23일과 30일에 서울 연세대와 경기 강남대에서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김준 사무총장은 박수광 이사장의 환영사 대독을 통해 “그동안 진행된 대북 장애인복지사업의 정보를 공유하고 북한 장애인들의 생활, 제도, 재활사업, 자활 등의 정보를 공유하여 대한민국 통일을 위한 복지분야의 준비가 발전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제 1주제인 “대북 장애인 지원사업의 성과와 전망”은 평양 민족장애인 원아지원 협력사무소 신영순 소장(푸른나무 공동대표)이 북한 장애인 제도와 대북 인도적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고, 제 2주제는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이준우 교수가 “남북한 간 지속가능한 장애인복지 협력모델 및 추진방안”이란 제목으로 통일대비 장애인복지 분야 남북한 협력방안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시간에는 “통일을 위해 남북간의 정서적 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면서 “(남한 내에서) 북한 장애인 관련,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이제 널리 알리고 동참할 수 있는 여론이 형성되어야 하며, 북한 내에도 장애인 관련한 지속가능한 모델이 수립되길 기대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미래 통일을 바라보며, 생소한 북한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해 귀 기울이며, 앞으로 남북한의 복지균형을 위해서 남한과 협력하는데 우리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차 대구지역 포럼

3차는 10월 25일에 대구시 교육청에서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음악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북한의 문화예술에 대해서 발표를 맡았습니다. 북한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청소년들은 집중하지 못하고 옆 친구와 잡담을 하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있는데... 연주가 시작되자 바로 집중하는 500명의 청소년들... 북한동요와 아리랑 등, 몇 곡을 연주했을 뿐인데 100마디 말을 들은 것 보다 더 깊은 울림을 들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발표 사이사이에 직접 피아노 연주로 실례를 들어주며 청소년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문화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것ですよ. 이렇게 음악공연으로 포럼을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푸른나무 신영순 대표님의 북한 장애인 복지사업의 사례발표가 끝난 후, 세 번째 발표를 맡으신 푸른나무국제청소년네트워크 총재 강지원 변호사는 ‘통일을 준비하는 청소년의 과제’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평화통일의 주역은 청소년들이다. 우리는 지금 행복한가? 지금부터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통일이 되었을 때 기쁨으로 북한을 맞이할 수 있다. 모든 청소년들이 행복해지는 그날을 기대한다. 남한에서 행복해지고 마음이 풍족해져야 봉사도 하고 북한을 포용할 수 있다. 홍익정신이 구현되는 통일한국을 위해 홍익을 실천하는 청소년이 되어야 한다. 북한까지도 사랑과 자비를 넓게 펼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청소년들은 그동안 듣지 못했던 북한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통일을 위해서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항요셉 (평양민족장애인복지지원협력사무소 부소장)

서로 하나가 되는 그 날까지 나는 오늘도 그들에게 나아간다.

지난 2011년 3월을 기억해 내는 것은 내게 가슴 떨리는 일이다. 4년전 3월 첫 방북 이래 어느덧 12번도 넘게 그 땅을 밟았다. 때로는 힘든 기억도 있었지만 모두 은혜의 시간, 감사의 시간으로 기억된다. 그 동안 쌓인 이야기들을 풀어 내자면 2박3일도 모자라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은 그 곳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다. 과거 회사업무로 많은 나라들을 여행했었지만 항상 내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언어와 소통의 문제였다. 그러나 지난 십여 차례 북한을 여행하면서 그 힘들었던 외국인들과 언어의 문제가 이들과 나 사이에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나는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 언어를 사용하는 동포임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되었다. 북녘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의사의 소통뿐만 아니라 따뜻한 정과 우정과 같은 감정의 소통도 경험하고나니 “우리는 동포요, 또한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 이 더한 가슴 벅참이 되어 솟아 오른다

4년전, 첫 방문때 일어났던 해프닝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심양에서 평양행 항공기를 놓치고, 어쩔줄 몰라 했던 기억, 그리고 그날 오후 늦게 심양을 출발한 낯은 시외버스는 한밤중이 되어서야 단동에 도착했고, 늦은 겨울 아니 이른 봄의 한밤중 진눈깨비가 흩날리는 어둡고, 스산하고 그리고 낯설고 외로운 땅에서 1박을 했던 쓸쓸하고도 어수선했던 기억, 그런 느낌을 읊조려스럽다고 표현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다음날 거의 열시간 동안의 단동-평양간의 기차 여행은 나의 일생동안 잊혀지지 않을 내 인생의 소중한 한 편린이 되어 내 가슴속에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처음 방문했던 평안남도 성천농아학교의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흘렸던 눈물은 평양으로 돌아오는 한시간 내내 그칠 줄을 몰랐었다. 농아 아이들을 위한 재활직업 훈련의 일환으로 시작했던 안경제작 훈련과 그 이후의 이야기는 지금도 가슴 따스해오는 기쁨을 느낀다. 나는 오늘도 그 아이들이 자립하고 자활하고 또 당당하게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주기 위하여 골몰하고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들도, 그 아이들도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도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매일 두 손 모아 소원하고 있다.

남북이 두 동강난지도 70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 동안 우리는 서로 너무나 달라져 버렸음도 실감한다. 언어의 뿌리는 같되 이미 그 의미와 소리도 달라져 있다. 자칫하면 서로간에 오해를 살 수 있는 단어도 생겨났다. 남측에서는 좋은 의미나 용법으로 사용되는 일부 단어들은 북측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 들이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었다.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음식 이름과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형용사들도 생겨났다. 관습과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도 달라졌다. 아마도 그래서 남북대화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다면 혼자 결론을 내려보기도 한다. 그러나 지난 4년간 만나고 또 이야기하고, 웃고 때로는 얼굴을 붉히기도 하며 나는 그들에 대하여 더 알게 되었고, 또 그들은 나를 통하여 그들과 다른 한편을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믿는다. 이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해야 할 때다. 서로의 가슴속에 품고 있던 오래된 분노와 아픔과 상처를 치유 받아야 할 때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여야 할 때라고 믿는다. 그래서 하나되고 화합하는 그 날이 오기를 고대해 본다. 내가 섬기는 장애를 가진 그 땅의 아이들처럼 허리가 꺾인 우리 한반도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나는 오늘도 어설픈 발걸음이지만 그들에게로 나아간다.

2014 복녃 어린이 지원

푸른나무는 복녃의 고아 아이들의 생활시설인 육아원(1세~4세), 애육원(5~6세), 초중등학교원 (7세~16세)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식량지원, 영양증진, 생필품 보급, 교육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며 정치적 이념을 떠나 통일 시대를 열어갈 다음세대인 어린이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첫번째 이야기>

황해북도 육아원 분원

황해북도 육아원 분원은 5세 미만의 330여명의 고아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위치하였으며 사리원 애육원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2003년 6월부터 신영순 (Sue Kinsler) 선교사가 식량과 의약품, 의류, 냉동기, 세탁기, 생필품등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2008년 통일부 기금과 미국장로교 선교부 지원으로 건물 내부와 외부 페인트까지 모두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특히, 식당과 부엌시설은 어린이 건강과 생활 개선을 위해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해주게 된 시설입니다.



▲ 황해북도 육아원을 정기후원하고 계신 G&H 재단 대표분들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육아원 아이들과의 따뜻한 기억들

육아원에는 영양실조로 출생된 아이들이 많아서, 허약한 아이들도 있었지만 지속적인 지원으로 건강상태가 좋아지는 원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김경숙 원장님이 어린이 노래와 춤, 마술 등 특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아이들의 공연을 보게 되는데 나날이 실력이 높아가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박수갈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년간을 방문해온 황해북도육아원에는 어린 원아들이 방문단의 얼굴을 알고 있기에, 빵과 콩우유를 간식으로 먹다가 고사리 같은 손에 빵을 내밀며 “같이 잡습자요”를 외치며 달려나옵니다. 헤어지는 시간에는 “잘 가시라요! 또, 오시라요” 창가에서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아이들의 얼굴은 우리가 한 민족이고 핏줄임을 뜨겁게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동물 사육장이 생겼어요

2014년에는 조금 더 특별한 협력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동물사육장과 양어장, 채소온실입니다. 현재 황해북도 육아원본원에 갖추어진 동물사육장 공간에는 돼지, 토끼, 닭, 거위, 칠면조 등의 여러 가축들을 기르고 있는데 아이들의 단백질 섭취를 목적으로 할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육아원 앞마당에 아직은 규모가 크지 않지만 채소 온실을 꾸며 다양한 먹거리를 직접 재배하고 먹을 수 있어 규모를 확대해갈 예정입니다.



<두번째 이야기>

사리원콩우유빵공장

사리원콩우유빵공장은 황해북도 지역의 유아원, 유치원, 소학교의 어린이 약 1만여명에게 급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립되었습니다. 모든 콩우유 기계들과, 두부기계를 포함하여 빵 기계들은 모두 남한에서 배로 보내어 공장 설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빵공장 건물도 2007년 모두 새로 건축하였고, 남한에서 건축자재를 보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하지만 2009년 이후, 지원이 줄어들게 되어 최근에는 방북단이 공장에 직접 방문하여 빵재료를 지원해 줄 때만 빵을 생산하고 지역 고아원 3곳에 콩우유와 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크림빵 출시

지난 방문 때 제빵의 원료와 질을 높여서 일반 판매를 통해 원아들의 무료급식을 돕는 방안을 지배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몇 개월 후, 큼직한 크림빵을 샘플로 만들어 놓아 빵을 시식하고 크게 감탄했습니다. 앞으로 사리원 빵 공장은 상품 가치가 있는 영양가 있는 빵을 생산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남북이 팍 막힌 상황에서 국제 푸른나무 재단은 해외 동포들과 빵 재료를 적은 양이지만, 지속적으로 매월 지원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남북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원아들에게 먹일 빵 재료를 공급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질이 좋은 빵을 생산, 판매해서 빵 공장이 외부 지원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빵 재료 비용을 일부 충당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사리원빵공장이 이제는 원아들에게 무료 급식만이 아닌 “자력갱생”의 빵공장으로 부활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련맹과도 상세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북녘 어린 아이들에게 영양빵을 하루에 1~2개씩 먹여야 하는 이유는 건강한 우리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조건 없이 나누어야 할 일이기에 푸른나무는 이 작은 나눔의 통로가 되고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4 북녘 장애인 지원

푸른나무는 북녘 전역의 농아학교(8개소)와 맹아학교(3개소) 및 장애인 자립센터, 무료급식 공유유방공장과 장애인예술협회, 장애인체육협회를 대상으로 협력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북장애인들의 복지균형의 기초를 마련하며 나아가 북측 장애인들의 사회적 인식개선과 직업재활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국제 장애자의 날 행사

(2013/12/03)

평양 대동강구역 청년 대극장에서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이 주관하는 4번째 세계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해외 동포들과 평양에 주재하는 각 나라 대사들, 외국인 관계자들이 대거 참가하였고, 각 도의 특수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많은 장애인 부모님들, 보건성 위원장과 장애자련맹의 관계자들, 평양 시민들이 함께한 “세계장애인의날”을 기념하는 성대한 행사 현장이었습니다.

기념식에 이어 시각장애인들과 농아무용단과 정신지체, 자폐 아동들과 평양청년 오케스트라의 합동 예술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장애인들의 예술 공연이 끝나자 꽃다발 세례가 극장 안에 가득했습니다. 앞을 보지는 못해도, 말을 할 수가 없어도, 지체의 한 부분이 없어도,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북녘의 장애인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 감동의 현장이었습니다.

국내 장애자의 날 행사

(2014/06/18)

평양어린이학생소년궁전에서 열린 <<국내 장애인의 날>> 기념모임에는 많은 평양주재 대사관 외교관들과 해외동포들과 평양시민들과 장애인 가족들과 친지들로 가득 메워져 있었습니다. 옆 자리에 앉은 각 나라 대사들과 인사를 나누며, DPRK의 뜻 깊은 장애인의 날 행사에 대해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10시부터 화려하게 펼쳐지는 룡아, 맹아, 지체 장애인들의 합동 예술공연을 관람하며, 감격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북녘의 장애인들이 이제는 축복의 근원이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현장이었습니다.





조선 장애인체육협회

2012년 런던장애인올림픽에 최초 참가한 것에 이어 2013년에도 국제무대에서 조선 장애인체육협회의 성과가 돋보였습니다. 2013년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시아 청년장애인체육경기 대회'에 조선장애인체육협회 선수 3명이 참가하여, 임주성 수영선수가 은메달 2개를, 탁구복식과 싱글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을 1개를 획득한 것은 국제 대회 참가하여 처음으로 메달을 따내며 또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2006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 처음으로 북측과 동행하여 참관한 이후로 북측 장애인체육을 준비하기 위해 체육 기자재를 지원하기 시작하지 불과 7년 만에 거둔 성과들이고, 특히 조선장애인체육협회 리분희 서기장과 힘을 합친 보람이기도 합니다.

2014년 2월 방문시에 전용관 동아시아장애인올림픽 위원장(세계장애인올림픽 위원으로서 처음으로 DPRK NPC를 방문하는 IOC 위원)과 조선장애인체육협회(NPC)가 앞으로 국제 장애인체육대회에 지속적으로 경기에 참가하도록 리분희 서기장과 협의를 하며, 북측 장애인 선수들의 전지훈련과 체육경기종목을 더 많이 개발하도록 협력 지원하는 전반적인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에 최초 참가한 북측대표단의 상세한 이야기는 8 ~ 10p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장애자예술협회

조선장애자예술협회에는 맹아연주단과 농아무용단 학생들이 있으며, 장애인 문화센터에서 악기 연주와 노래, 무용 공연을 연습하고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협력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내 행사에서 공연무대를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나날이 실력이 향상하고 있습니다. 방북단이 방문했을 때 장애인예술단원들과 함께 '나의 살던 고향'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하며, 룡아들도 손말(수화)로 노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아름다운 현장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애어린이회복중심

평양 대동강 구역에 위치한 “장애어린이회복중심” 특수 교육 현장에 2013년 처음으로 방문하였습니다. 20여명의 자폐, 다운증후군, 뇌성마비, 지적 장애인 등 12세 미만 어린이들이 주중에 생활하며 특수교육과 치료들을 받고 있고, 17명의 특수교육 교사와 부모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선생님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아이들은 회복치료를 통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방북지원소식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차수별 방북보고서를 통해서 사진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2014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에 참가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느낀 보람과 기쁨

신영순

Sue Kinsler

푸른나무 공동대표
민족장애인원아지원
협력사무소 소장

9월과 10월 2번의 방북일정기간 동안 10월 18일에 개막하는 인천장애인아시안경기대회에 북측이 참가할 수 있도록, 남과 북, 민족 평화와 화해의 길을 열어가기 위한 노력의 시간을 회상해보니 보람의 눈물과 기적 같은 일들이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지난 6월부터 남북 화해와 아시안장애인게임에 평화의 상징으로 북측 장애인들이 판문점이 나, 도라산 육로로 내려 오는 것을 남과 북에 제안 했었고, 북측 장애인 대표단이 도라산 개성으로 육로 방문도 좋다는 내용의 남측 통일부 장관님의 서신을 북측 편맹에 전달 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측 장애인 대표단은 육로를 통해 인천으로 내려오지 않고, 아쉽게도 비행기로 입국하는 것으로 북측에서 결정을 했다는 소식을 제게 알려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북측 장애인들이 인천장애인아시안경기대회에 처음으로 참가하게 된 소식만도 꽤거였습니다!

그 동안 남북의 정세 때문에 북측 장애인 선수들이 인천아시아장애인 경기 참가에 대한 공식 발표도 못하고 있던 터라, 인천 아시안장애인 경기 조직위원회에서, 북측 장애인들이 언제 남한에 올 것인지, 계속 푸른나무 사무실과 저에게 문의가 오고 있었으나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대표단이 인천으로 입국하기로 한 10월 11일,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급하게 총 33명이 평양에서 10월 11일과 16일 북경으로 가는 고려항공 표를 구입 하도록 협조 해주었습니다. 제가 중국 심양에 도착하는 대로 3일 안에 33명의 대표단이 북경에서 인천까지 가는 항공 예약 등 준비할 사안들이 관건이었습니다. 밤 늦게야 북측 대표단 영문 이름과 여권번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A 팀의 7박 8일은 보람 속에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심양에 도착 하자마자 북측 대표단 명단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급하게 푸른나무로 전송하고, 명단을 빨리 인천 조직위로 보내서 북경에서 인천으로 11일에 도착할 수 있도록 예약을 부탁하는 등 여러 행정상의 업무들을 일사분란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여러 도움의 손길과 노력을 통해서 결국에는 11일과 16일에 대표단 33명이 모두 입국하여 선수촌으로 이동하는 역사적 순간에서 벅차오르는 감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9일간의 열전에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당당히 북녘의 장애인체육역사에 한 획을 그은 북측 대표단들을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그 감동과 보람,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2014 후원자와의 TALK

이

사회복지법인 밀알

남북의 장애인들이 함께하는 그날을 꿈꾸며...

사회복지법인 밀알 오상근 이사장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 우리팀은 서울사무실에서 자가용을 타고 한시간 반을 이동하여 대전의 사회복지법인밀알 사무국을 방문하였다. 오상근 이사장님을 만나 뵙고, 바로 밀알복지관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시설의 전문성에 한 번 놀라고, 장애인을 대하는 선생님들의 진정성에 다시 한 번 놀라는 시간이었다. 밀알복지관을 둘러보며 '이러한 복지관의 시설과 시스템을 하루빨리 북녘에서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부슬부슬 내리는 비처럼 내 마음을 적셨다. 다음은 오상근 이사장님과의 일문일답이다.

Q1. 먼저, 사회복지법인 밀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 밀알은 사랑, 섬김, 나눔, 봉사의 기독교 정신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하여 1997년 4월 11일에 설립하였습니다. 현재 오상근 장로님이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법인시설로는 대전밀알의 집(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명은주간보호센터(중증, 중북 장애아동의 주간보호시설), 밀알복지관(장애인 복지관 2004.9.1. 개관), 판암 보호작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판암 주간보호센터(성인 장애인 주간보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인은 법인 설립이전에도 1990년부터 장애아동을 위한 조기 교육 및 치료를 해왔으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전도와 봉사, 예배로 섬겨 왔습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과 치료, 공동생활 가정 운영 등은 지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Q2. 푸른나무는 어떻게 알게 되었고 후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부부와 담당목사님, 복지관장, 관계자가 함께 대천에서 신영순 선교사(푸른나무 공동대표)를 만났습니다. 신영순 선교사로부터 북한과 북한 선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듣고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북한사역을 돕기로 결정하고 푸른나무를 통해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Q3. 남북교류가 활발해져서 방북이 가능해지면 북한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제일 먼저 어떠한 일들을 하고 싶으신가요?

북한의 장애인 실태를 우선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기관이 잘 해 왔던 일인 장애인동들의 교육, 치료, 돌봄 등의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북한 사정에 맞춰 장애인을 돕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할 것입니다.

Q4. 푸른나무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북한과의 지속적인 좋은 관계 속에서 장애인들의 실태파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복지적 접근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5. 밀알에게 장애인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와 다름없는 사랑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2014 후원자와의 TALK

02

강남교회

나눔은 훈련되어 익숙해져야 합니다.

강남교회 원대혁 목사

어른들은 매월 정기후원으로,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종이저금통 함께하고 계신 강남교회 원대혁목사님으로부터 전화 한통이 걸려왔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금통을 모았는데 한 자루 가득 찼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약속을 잡고 강남교회로 향했다. 8월 말 햇빛이 뜨거운 여름 날, 큰 키에 미소 띤 얼굴이 매력적인 원대혁 목사님과의 인터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Q1. 강남교회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노량진이 원래 강남이었습니다. 예전부터 노량진 나루터가 있던 곳이었고, 1950년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북의 전쟁난민들이 이곳에 정착해서 세운 교회가 지금의 강남교회입니다. 아직도 이북 분들이 계십니다. 개척 담임목사님도 이북에서 의사이자 목사였고, 당시 정착한 이북분들과 어려운 분들이 치유와 복음, 선교로 세운 교회가 강남교회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교회 설립의 시작이었습니다. 북한선교와 강남교회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밀접했습니다.





Q2. 푸른나무는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강남교회는 설립 부터 북한 선교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를 비전으로 장애인 사역에 비중을 두고 다양한 교회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보니, 푸른나무 활동과 교회의 선교 방향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4대 담임목사님으신 고문산 목사님이 취임하시면서 본격적으로 푸른나무와 함께 연합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푸른나무를 담임목사님께 소개한 이유는 북한선교에 있어서, 그 중에서도 장애인과 고아에 집중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인 사역자(선교사)에게는 신뢰성과 투명성에서 한계가 있어서 좀 더 신뢰할 만한 단체가 필요했고, 그게 푸른나무였습니다.

Q3. 어떻게 복벽의 어린이&장애인을 돕는 후원집회(행사)를 하고자 생각을 하셨나요?

특별히 올해가 교회 60주년이었습니다. 주제가 “이웃과 함께하는 강남교회”였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니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투게더집회에서 푸른나무를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당시 박수광 대표님께서 푸른나무의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북방선교에 대해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Q4. 후원집회 후 참여하신 성도님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에피소드가 있다면?

강남교회에서 북방선교를 위한 후원집회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우려와 기대를 가지고 진행했던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기대치 않게 200여명의 후원약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강남교회에 주신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북한선교에 관심이 있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특히 북방선교에 대해서 공유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번 행사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Q5. 많은 교회 어린이들이 종이저금통 캠페인을 통해 후원을 했습니다. 종이저금통 후원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사실 놀랐습니다. 별로 안 들어 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많이 들어왔던군요. 여행용가방에 가득 찼던데요.(웃음)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북한선교에 대해, 북한이 한민족이라는 복음적인 통일에 대한 교육이 교회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북한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주일학교에 보내야하고, 같이 일해야 되는데, 딴 나라 사람 보는 것 마냥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웃음) 교회 안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금통도 그 일환으로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교육과 함께 저금통 나누기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Q6. 우리 기관은 북한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후원자세를 꺼려하는 게 사실인데요, 후원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신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교단체나 법인체들이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았을 때, 부실운영으로 인해 기관이 문을 닫으면 직접적인 피해가 아이들한테 가기 때문에 신뢰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이 필요합니다. ‘북한이라는 곳은 단체가 공개적으로 돕는 것이 힘들다’라는 걸 이용해서 착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대한 신뢰를 더 두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점검, 감독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푸른나무는 감사를 외부인사로 두어서 한다고 하던데.. 이런 것들이 신뢰이지 않나, 감사 비용이 들더라도 투명성있게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Q7. 나에게 나눔이란?

사실 저는 나눔 자체를 잘 못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익숙하지 않는데요. 내것을 준다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음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은 받기에 되게 익숙합니다. 주는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는 것은 기도와 설교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받는 것에 익숙해지고 주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눔은 훈련되어져서 익숙해 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눔이 어려운 일이 되면 그 사람은 성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눔이 제 몸에 익숙하게 하기위해서 장애인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들과 나눠야 합니다. 저도 제 통장에 돈이 많아지면 불안해 집니다. 어디 쓸까에 몰두하는데 그게 별로 하나님나라에 도움이 안되는 곳에 쓰이게 되죠...(웃음) 항상 나 자신을 비우려고 노력합니다.

2014 후원자와의 TALK

03

광염드림교회

나에게 뜨개모자는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세워준 아름다운 것

유난히도 추웠던 이번 겨울 광염드림교회에서 온 교인들이 손수 한땀한땀 정성들여 뜨개질한 뜨개모자 1,900여개를 복녜의 아동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보내왔습니다. 복녜는 남한보다 춥습니다. 그래서 털모자를 쓰면 기온이 3도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푸른나무에서는 두차례에 걸쳐 복녜의 아이들에게 털모자를 전달했고, 동영상을 찍어 광염드림교회에 보내드렸습니다. 광염드림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에는 오세민 담임목사님, 황주임 사모님, 전도사님 한 분, 성도님 한 분이 참여하였다.



Q1. 광염드림교회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광염드림교회는 서울의 감자탕교회로 알려진 광염교회(담임 목사 조현삼)의 후원으로 이곳에(의정부) 세워졌습니다. 저는 8년 동안 부교역자로 있다가 2012년도에 개척했고, 3년정도 지난 교회입니다.

Q2. 푸른나무를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2012년도 송정미사모님 콘서트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이어리를 선물로 주셨는데, 다이어리 안의 '단체소개란'을 보고 아하 이런 단체가 있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Q3. 어떻게 푸른나무와 연결되어서 후원을 시작했나요?

우리가 일주년 감사예배로 푸른나무 사역자를 강사로 초청하면서, 마침 그분이 장애인 사역 때문에 북한을 다녀오셨고 북한에 다녀온 이야기가 있어서 북한에 대한 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쪽 아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사역에 동참해야 되겠다 생각하던 중, 털모자보내기 운동은 서울 가양교회에 있을 때부터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해 왔던 거라서 이곳에서도 마음에 품고 있었죠. 마침 북한에도 털모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푸른나무에 연락했는데, 그 때가 겨울이 다 지나가는 때여서 그럼 다음 겨울을 위해서 1년동안 모아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죠.

1,900개의 모자를 떠서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5명이 시작을 해서 한두명 동참하면서 확대되었고, 1년쯤 지나니 꽤 많이 모였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업이 우리교회의 1주년 기념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시작할 때는 북한을 염두하지는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푸른나무 쪽으로 마음이 가면서 호의적으로 사무실에서 안내해주셨고,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북한을 놓고 기도하면서 뜨개질하면서 보냈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마지막 포장할 때는 50명정도 남으셔서 도와주셨습니다. 10배의 축복이 이루어 졌습니다. 뜨개질이 정말 은혜가 되는데 그냥 뜨지 않잖아요. 무에서 유가 되는데 기도하면서 하니깐 정말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계속 실 모자라면 사가면서 했습니다.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데요. 새로 배우시는 분이 있었는데, 다섯 번 여섯 번 뒀다가 거의 끝에서 하나 잘못되어서 다시 풀고 뜨신 분도 있고요, 처음 시작은 울실로 사서 했었어요, 사실은 따뜻한 물에 빨면 안되는 실이거든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양을 따뜻한 물에 빠신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가지 못한 모자가 있어요. 울실은 따뜻한 물에 들어갔다가 마르면 쪼그라져서 딱딱해져요. 그런 모자가 75개 정도 되었어요. 우리가 얘기하기를 받는 아이들은 1개를 받는다. 이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만들면 그걸 받는 아이들은 실망하게 된다. 그 아이에게는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아이의 기쁨을 위해서도 한 개씩 한 개씩 최선을 다하자고 했습니다.





Q4. 성도의 입장에서 털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군요.

제가 고무뜨기를 하면 남편이 겹뜨기를 해주었을 정도로 모두 동참했어요. 미국에 딸보러 갈 때도 가지고 가서 뒀어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9월에 합해보니 1,900여개를 뒀더라고요, 다 뜨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서 하고난 다음에 더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측량을 못하는 것 같아요. 같이 뜨지 못한 분들도 포장할 때는 함께 도와주셨어요. 어떤 분은 200개 넘게 뜨신 분도 있어요. 처음에는 200개도 뜰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이 뜬 걸 보고 막판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Q5. 마지막으로 오세민 목사님에게 복녜의 아이들이란?

기쁨인 것 같다. 책임이고 의무이다. 사랑이고 감사이다.

Q6. 사모님에게 통일이란?

북한이라고 얘기했을 때 떠올리는 말은 긍휼이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한 형제, 굶으려야 굶을 수 없는 한 민족

Q7. 전도사님에게 통일이란?

이땅의 복음의 시작! 그 곳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나에게도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시 돌려주기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Q8. 성도님에게 북한이란?

복음의 빛을 갇는 곳, 제 마음의 빛을 갇는 곳, 제 묘지가 있었으면 하는 곳, 저한테 뜨개모자는 내 속에 있는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세워준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추운 곳에서 긴 겨울을 견뎌야 할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겨울내복> 선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복녘의 어린이들에게 부모가 되어줄 수는 없지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해주는 키타리 아저씨는 될 수 있겠죠? ^^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잘 포장하여 전하겠습니다.
 내복을 선물하기 위해서는 한 벌당 1만원이 필요하며,
 이번 겨울에는 총 2,000명의 복녘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합니다.

포근, 따뜻 내복 선물하기

▶ ARS후원전화: 060-700-1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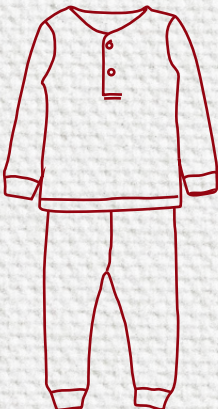
ARS후원전화 한통으로 1건당 5천원씩 후원하실 수 있으며,
 휴대폰은 여러 건의 후원도 가능합니다.

▶ 후원계좌: 국민 760737-04-007453 (사단법인 푸른나무)

▶ 문의 02-3482-2000

▶ 푸른나무 페이스북: www.facebook.com/greentreekorea

카카오톡ID: greentreekorea



작년,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내복을 입은 복녘 아이들

교회와 함께하는 푸른나무

한국에는 남북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을 위해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실천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교회들이 기도 외에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푸른나무는 교회와 함께하여 북방선교에 대한 방법을 찾아주고, 도전을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남교회

푸른나무는 6월 22일(일) 화창한 봄날, 강남교회에서 북녘어린이&장애인 돕기 후원예배를 1부부터 6부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후원예배는 푸른나무의 고문이신 아더목사님, 이사장 박수광목사님, 사무총장 김준목사님의 말씀과 소울 싱어즈의 파워풀한 찬양이 더해져 북녘땅을 향한 풍성한 은혜가 가득 넘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후원집회를 통해 많은 성도님들이 북방선교와 민족통일을 바라며 후원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어른들은 매월 정기후원으로,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종이저금통 모금으로 정성을 모아 주셨습니다.



예산장로교회

9월 13일(토), 충남 예산의 '예산장로교회(담임목사 김종신)'에서 진행된 송정미와 Greentree Music이 함께한 통일후원콘서트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찬송의 은혜와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마음 모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푸른나무에 함께 해주실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기 및 일시 후원으로, 또는 종이저금통으로, 그리고 자원봉사와 재능기부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콘서트 이후에 충남지역 후원자분들이 마음을 모아 푸른나무 충남지부를 설립하자는 의견을 모으고 지부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을 품고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주신 많은 분들과 함께 푸른나무는 앞으로 더욱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자의 글>


피난민에 의해 세워진 교회! 통일콘서트로 결실을 맺다!

어느 해 겨울 한국전쟁 때 혼자되신 시어머니와 금강산여행을 하기 위해 북쪽을 향해 배를 탔습니다. 여러 경로를 따라 북에 도착한 우리는 버스를 타고 금강산을 향했습니다. 차창 너머 기차길로 걸어 등교하는 학생들을 보는 순간 애잔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허름한 모습에 옆에 계신 시어머니와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금강산 구경을 마치고 돌아오는 뱃속에서 허망해 하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그동안의 외로운 아픔을 소리내지 않고 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을 겪어 보지 못한 저는 그 상처를 다 헤아릴 수 없으나 하나님만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해인가 교회 청년들과 백두산을 찾았습니다. 중국 장백산을 경로로 해서 올라갔습니다. 두만강 건너의 공허한 북한 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마음도 공허해졌습니다. 공장의 굴뚝에서 연기가 일년에 한번정도 올랐는데 요즘은 그것도 오르지 않는다는 관광가이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 7년이 지나 2014년 총회 여전도에서 북한선교에 관한 세미나를 2박3일을 받고 더욱 북한선교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기도로 준비해오던 중, 마침내 북한 장애인과 고아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푸른나무 주최로 예산장로교회 협력으로 통일콘서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 들어 북한 땅에 대해 기도하게 하고, 사십일동안 새벽설교가 통일과 북한땅에 대한 하나님아버지 마음에 관한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었던 시기였기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룰 일이지구나 생각이 들어 나는 우리 민족에게 온유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예산장로교회는 피난민들의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북민들의 신앙이 교회의 기초가 된 곳이죠. 그동안 기도로 준비해온 일들을 하나님이 충남땅 그것도 예산에서 이북선교의 시발점이 되는 콘서트를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열심히 뒤에서 여선교회와 남선교회와 함께 최선을 다해 협력하였습니다. 통일콘서트를 통해 많은 은혜가 있었고 이를 위해 쓰임 받은 것이 감격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주말마다 광고를 통해 십사일만 협력하여 도우시라는 당부도 있었기에 온 교인이, 특히 이북민들의 어르신들이 함께할 수 있었던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협의회 회장으로서 북한선교를 위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작은 노력이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와 평화통일의 소망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푸른나무와 함께 가기를, 함께 감당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그 힘과 능력으로 은혜로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신일선 권사
(예산장로교회)

2014 사업보고

Annual



Business Report

1분기	방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체육교류협회 장애인체육지원 MOU체결 (1/6) - 이지선 홍보대사, 지구촌교회 후원집회 (1/8) - 푸른나무 소식지 (newsletter)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용품 선물하기 캠페인 진행 - 법인이사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행이사 정기모임 - 2013년 회계 재정보고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외부회계감사 실시 (4/11) - 지와이엔(Global Young Net), 북녘 청소년 지원협력 MOU체결 (4/15) - 월드휴먼브리지, 북녘 고아 구호기금 전달 (4/17) - 통일부 민간통일운동 활동지원사업 선정 - 2014जू빌리기도큰모임 푸른나무 홍보활동 (6/6) - 강남교회와 함께하는 북녘 어린이 & 장애인 후원행사 (6/22) 	<p>2014년 1차 방복지원 (2/11~2/22) 고아,장애인시설 생필품 및 기타지원 \$25,775 아동겨울내복, 점퍼, 시각장애인용 교육기구, 장애인 체육기구 \$7,312</p>
	<p>2014년 2차 방복지원 (6/13~6/21) 고아,장애인시설 생필품 및 기타지원 \$40,339 태양광충전등, 음악교육기구 \$8,120</p>
	<p>2014년 3차 방복지원 (7/26~8/12) 고아,장애인시설 생필품 및 기타지원 \$24,670</p>
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라코리아, 후원물품 전달 (7/8) - (주)이스트콘서트 코리아, 후원물품 전달 - 푸른나무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 (8/8) - 푸른나무 영문홈페이지 개설 (8/18) - 추석밥상 모금캠페인 진행 - 바퀴달린그림책, 어린이작가 후원금전달 및 나눔교육 (8/30) - 통일부 대북인도적지원사업 선정 (온실 지원사업) - 송정미와 그린트리뮤직이 함께하는 통일후원콘서트 (9/13) - 2014년 민간 통일운동 활동지원사업 <통일세대를 위한 북한장애인제도 및 정책>포럼 (9/23, 9/30) 	<p>2014년 4차 방복지원 (9/10~9/18) 고아,장애인시설 생필품 및 기타지원 \$27,617 장애인예술단 기구 \$2,000</p>

* 소식지 발행일자로 인해 3/4분기까지 포함됩니다.

개인 (정기/일시)

40 - 41

Reporter List

이세중 이소망 이소연 이소정 이소영 이수연 이수지 이수진 이수혁 이수현 이순복 이승미 이승찬 이승철 이승현 이승환 이시은 이신아 이신애 이신임 이아침 이애린
이어진 이예스터 이연경 이연실 이영숙 이영일 이영준 이영택 이영화 이영희 이예은 이예진 이옥분 이옥석 이외순 이요섭 이요셉 이용우 이용희 이원재 이원정 이유경
이유진 이유진 이윤경 이윤민 이윤선 이윤이 이윤정 이윤주 이은나 이은미 이은영 이은영 이은혜 이인석 이인숙 이인숙 이인종 이일섭 이임숙 이재숙 이재준
이재현 이정미 이정민 이정민 이정아 이정애 이정철 이정숙 이정은 이정은 이정화 이정희 이종구 이종덕 이종순 이종호 이주나 이주란 이주리 이주연 이주영 이주혜
이진호 이찬우 이창록 이철호 이춘우 이충원 이태석 이태성 이태영 이필선 이필숙 이하은 이해성 이해주 이항화 이현구 이현경 이현미 이현숙 이현옥 이현정 이현진
이 형 이형훈 이혜경 이혜선 이혜영 이혜인 이혜자 이호건 이호숙 이호정 이호정 이호준 이화선 이화선 이환수 이후남 이희영 임경아 임경희 임노아 임다은 임성아
임성주 임성준 임순영 임영림 임예진 임은희 임익성 임자원 임정애 임종화 임주아 임지수 임지혜 임지훈 임지희 임필선 임한곤 임현선 임현실 임형경 임휘재 임희정
장미은 장미희 장민창 장보름 장보연 장부교 장성주 장세동 장소영 장수창 장숙경 장숙영 장슬비 장산실 장예라 장우윤 장원석 장유식 장유진 장유진 장은진
장은혜 장은희 장정원 장주혜 장진석 장진영 장진주 장재현 장태훈 장한나 장현봉 장현정 장혜연 장혜주 장혜진 전동민 전미원 전세철 전수미 전여주 전영재 전영주
전우정 전 윤 전은주 전은혜 전재덕 전재빈 전준환 전지아 전해영 전환수 정가원 정경민 정경인 정공주 정궁화 정근모 정기영 정기욱 정다은 정대훈 정덕순
정모숙 정미옥 정미희 정보미 정상호 정서윤 정선미 정선영 정선용 정선진 정선희 정성순 정성영 정수진 정수진 정수희 정숙자 정슬기 정아름 정여진 정연필
정연화 정요한 정용근 정유평 정유평 정윤선 정윤주 정은주 정은하 정은희 정익석 정익진 정인선 정인숙 정일희 정재동 정재영 정재천 정재훈 정정훈 정주리
정주희 정지선 정지영 정지윤 정지은 정지환 정진희 정찬우 정학경 정해복 정현덕 정현옥 정현주 정현철 정혜송 정혜은 정혜인 정혜진 정효선 정효은 정휘진
정희정 정희현 조갑동 조건희 조경순 조규백 조두림 조미라 조민영 조병숙 조분진 조성님 조성래 조승희 조신철 조아름 조아영 조아영 조영완 조영진 조은영
조은비 조인성 조재숙 조차성 조천일 조하락 조한영 조항숙 조현건 조현진 조혜민 조혜정 조혜진 조희주 조희진 주경열 주미경 주봉업 주영민 주원아 주은주
주은지 주정숙 지연 지은파 지인희 지한비 진경희 진달래 진수정 진영현 진찬민 차가람 차인경 채민지 채빛나 채석민 채수아 채유순 채은화 채진아 채희병
채희선 천권국 천지영 천혜미 최금화 최다은 최단비 최다은 최두영 최명희 최미나 최미진 최미화 최민아 최민주 최범석 최병선 최병은 최보영 최복순 최복화 최상호
최서욱 최서정 최선영 최성수 최성은 최성경 최세진 최소망 최소영 최수연 최수영 최수정 최순희 최시내 최아름 최양희 최영준 최영준 최영희 최예민 최요한
최유빈 최윤주 최윤지 최은성 최인호 최재경 최재욱 최재준 최정민 최정하 최정희 최준 최준영 최준원 최지나 최지에 최지현 최진영 최진호 최창민 최창영
최충실 최태극 최한나 최향기 최현아 최혜경 최혜옥 최혜원 최혜정 최혜진 최훈규 최희경 최희선 추명선 추수미 추수진 추진성 추한규 탁윤조 하 길 하상빈
하영민 하유진 하은경 하지성 한건호 한규택 한규연 한명환 한빛 한선미 한수정 한숙자 한승미 한아영 한은지 한장현 한종훈 한주애 한지는 한현수 한현진
한혜영 한혜정 함태식 함향자 함호숙 해피빈 허기쁨 허미정 허수영 허수진 허영미 허준영 허지욱 허태연 허태희 허혜수 현소망 현은성 현지선 형남식 홍경의 홍대원
홍미봉 홍미영 홍상호 홍성길 홍성숙 홍성은 홍성익 홍승기 홍승아 홍승오 홍은아 홍의선 이은경 홍지영 홍지는 홍찬희 홍하연 홍현수 황경숙 황금단 황다름 황미리
황선민 황수민 황수진 황영옥 황윤미 황윤정 황은산 황은지 황은혜 황인숙 황지혜 황찬용 황현지 박채우 염미애

Arthur Kinsler Ro Sean Kim Sarah & Kyung H. Shin Saw phel er SU YANAN Sunny Ahn Sunny Englehardt

기업/단체 후원

(사)새길기독사회문화원	광양교회	본누벨 과자점	연대대학교회	제주국제학교
(주)바른손	광염드림교회	분당그리스도의교회	영성교회	주사랑교회
(주)아모레퍼시픽	국민은행 강남대로점	분당우리교회	예산장로교회	주식회사 페이스북바이오
(주)이스트쿤스트코리아	그루터기교회	사회복지법인 밀알	예수길벗교회	지구촌교회
(주)제일철강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중앙교회	산호세은누리교회	예전침례교회(여선교회)	참다운교회
(주)크레빅	기드온동족선교	상하이한인연합교회	오승	창동염광교회
(주)한록물산	꿈이있는교회	상해자정교회	왕십리중앙교회	코기코기
(주)효애진	노랑진강남교회	서대문교회	우리서로잡은손	콜롬비아 한인연합장로교회
100주년기념교회	닉부이치치	서울영동교회	월드휴먼브리지	푸른나무까페
CBMC 인천 꿈나눔교회	다애교회	선한목자교회	유앤에스	한국가정21연구원
G&H FOUNDATION	대구새누리교회	성주재단	유엔티기획	한나기도회
GREENTREE USA	대아톨(주)	세상의 빛 교회	유효진306목장	힐라코리아
WON FOUNDATION	더사랑의교회	소망교회	이건주샘치과	
가구마트	동강	순복음물덴동산교회	익산부송동밀러타임손님일동	
거룩한빛광산샘광천교회	문경당포교회	시애틀 형제교회	인랜드교회 USA	
경복교회	바퀴달린그림책	신부산교회청소녀부	일백복지재단	
광교지구촌교회	백석점 커피에 반하다	아가페교회	일산호수교회	
광야교회	벤쿠버 필라델피아교회	아웃리치 파운데이션	청주예향교회	

Support Campaign

2014 후원캠페인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우리와 멀지 않은 곳에서 생활하는 복讖 아이들과 장애인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모으며 진행한 캠페인입니다. 때로는 후원자분들의 선제안으로 이루어 지기도 했던 사랑이 가득 담긴 캠페인에 함께 동참해주신 모든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겨울내복보내기 캠페인

추운 겨울 필수품인 내복을 복讖 아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따뜻한 손길을 모아주시길 요청했으며, 여러 단체와 개인 후원자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목표한 내복 수량을 달성하였습니다.

- 모금기간: 2013년 11월~12월
- 전달시기: 2013년 12월, 2014년 2월 방북시
- 기간모금액: 1,460만원
- 수혜대상: 복讖 육아원, 애육원, 장애인특수학교 아이들 2,000여명

털모자

광염드림교회 및 후원교회에서 손수 뜨개모자로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셔서 방북시 푸른나무 정기 지원시설 아이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 모금기간: 2013년 연중
- 전달시기: 2013년 12월, 2014년 2월 방북시
- 수혜대상: 복讖 육아원, 애육원 아이들 2,500여명

추석밥상

민족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아이들에게 고기 만두국 및 송편과 같은 더 나은 영양섭취를 위한 모금 캠페인이었습니다.

- 모금기간: 2014년 8월~9월
- 전달시기: 2014년 9월, 10월 방북시
- 수혜대상: 복讖 육아원, 애육원 아이들 1,000여명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후원신청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말소득공제용 기부영수증 신청시 기입해주세요
휴대폰 (전화번호)	
E-mail	
주소	

약정금액	매월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만원
이체일	매월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0일 <input type="checkbox"/> 30일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생년월일

본인은 아래와 같이 푸른나무에 CMS자동이체를 이용하여 후원금을 납부하는 것에 동의하며, 후원금으로 납부해야할 금액에 대해 본인이 지정한 출금계좌에서 푸른나무로 지정 출금일에 출금하는데 동의 합니다. 만일 출금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푸른나무와 협의하여 조정하며 금융기관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동의하며 상기후원금을 CMS자동이체 할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름 _____ (서명)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물품후원 및 기업후원을 원하실 경우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3482-2000

www.greentreekorea.org



페이스북 www.facebook.com/greentreekorea 해피빈 happylog.naver.com/greentree 카카오톡 ID greentreekorea

후원계좌

국민은행 760737-04-007453 예금주 : 사단법인 푸른나무

후원문의

02-3482-2000

www.greentreekorea.org